

#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국향 허수아비’ 만들어요”

### 함평축제관광재단,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 앞서 공모전 잇혀져가는 농촌 들녘 풍경·쌀 재배 소중함 알리고자 추진

함평군(재)함평축제관광재단(이사장 이상익)이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막을 앞두고 ‘국향 허수아비 공모전’을 개최한다.

함평축제관광재단은 20일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막을 한 달 여 앞두고 오는 10월18일까지 ‘국향 허수아비 만들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상가, 단체, 학교 등이 직접 축제를 준비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며, 허수아비를 통해 잇혀져가는 농촌 들녘 풍경과 쌀 재배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추진된다.

표현내용은 저속한 내용이 아니라면 인물이

나 동물 등 표현 영역이나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영업체의 경우 홍보형 허수아비도 출품이 가능하다.

출품작들은 모두 나비교에서 읍시가지로 가는 천변 허수아비길에 설치되며, 축제기간 중 7개 작품을 선정해 대상 1명 100만원, 최우수상 2명 30만원, 우수상 3명 20만원, 인기상 1명 10만원의 상금을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함평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와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18일까지 참가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출품작과 함께 (재)함평축제



관광재단(축제엑스포사업소 3층)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함평축제관광재단 관계자는 “허수아비 만들기 통해 군민과 함께 준비하는 지역 명품축제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목포시, 조직문화 쇄신 공직자 의견 상시 수렴

목포시가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공직자들의 소통을 강화한다.

시는 공직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업무 추진에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내부 행정시스템에 익명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의견수렴방을 운영한다.

시는 여성공직자와 MZ세대 공직자의 비율 증가 등 인적 구성이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세대간 인식과 행동양식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조직문화를 혁신해 이 같은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전용 창구를 마련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가감없는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익명게시판을 개설했고, 한 달 동안 44건의 의견을 접수해 실행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중 제도적, 청사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10건을 제외한 34건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 다양한 활동·체험 기회 제공 하반기 방과 후 및 토요일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 모집...총 10회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고 문화적으로 소외되어있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9월 중순부터 말까지 하반기 방과 후 및 토요일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10월 4일(화)부터 12월 10일(토)까지 총 10회 진행된다.▲신나는 보드게

임, ▲두뇌개발 체스, ▲K-POP 댄스, ▲레진 아트 공예, ▲코딩드론 전문가, ▲불만없는 쿠키 클래스, ▲판소리야 놀자! 총 7개 프로그램 구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대상 및 인원은 관내 거주 10세~19세 청소년 총 72명 선착순 모집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 영암군 청소년 20명 대상 청소년 문화 두드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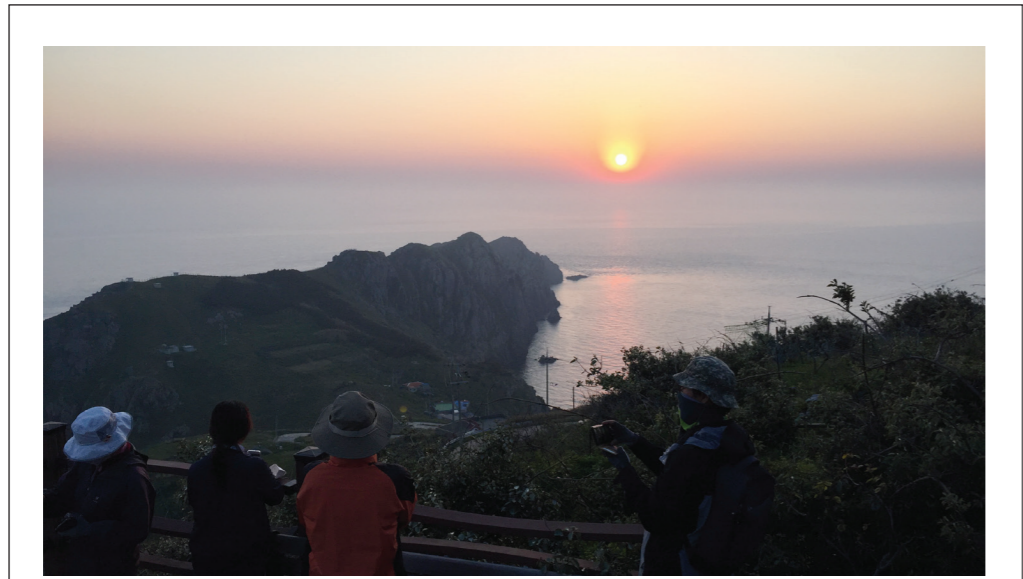
영암군이 지난 17일 관내 중·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 두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소년 문화 두드림은 문화 활동의 기회가 적은 관내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현장 활동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청소년들에게 일상 회복에 따라 7월에 운영했던 실내 스포츠 체험 및 연극 관람에 이어 오션이라는 테마로 여수의 바다와 자연 경관을 미디어 아트로 관람하고, 스릴감 넘치는 주행을 할 수 있는 루지와 다양한 야외 놀이공원 등을 체험하는 등 청소년들이 시원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진행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참여 청소년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미디어 아트를 처음 봤는데 빛과 소리가 함께한 영상들이 너무 신기했고, 루지와 놀이기구들을 탈 수 있어서 신나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 “더욱 아름답고 생물다양성이 존중받는 섬으로 만들어 갈 것”

지난 16일 오후 2시, 신안군청에서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거도는 국경의 끝점이자 시작점으로 영토 수호의 버팀목이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구굴도, 국가등록문화재 가거도 등대, 도지정문화재 가거도 패총 등 유형문화재와 가거도 산다미, 가거도 멸치잡이노래, 해녀문화 같은 무형문화유산까지 섬 본연의 문화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문화원형의 보고이다.

2020년 9월 2일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는 섬 동쪽으로 뻗어 내린 반도형 지형으로, 기암절벽으로 이

루어진 암봉과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가 장관을 이룬다.

특히 낙조 경관이 아름다운 점이 높게 평가되어 명승으로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코로나 확산과 기상악화로 인해 지정된지 2년이 지나야 지정 기념행사가 열리게 됐다.

행사는 섬등반도 소개, 가거도의 풍어와 안경을 바라는 기원곡, 자연유산 강연 등이 진행됐으며, 본 행사는 ▶자연유산 경과 보고, 보존 및 활용 방안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순으로 이뤄졌다.

신안=이덕주 기자



## 무안군, 쓰레기 없는 깨끗한 하천 조성 ‘앞장’

무안군은 9월부터 3개월간 청소년력 8명을 투입해 영산강 분류와 무안천, 남창천, 대치천 일대를 대상으로 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다량의 부유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해 생태 경관을 보호하고 하

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은 영산강 분류와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3곳의 지천에 각각 2~3명의 청소년력을 배치해 하천변에 방치돼 있는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선별해 처리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